

# 안전대전환 추진 노후시설 등 현장점검

## 안영규 인천 행정부시장 건설현장 방문 실태 파악

인천시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지난 31일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추진과 관련해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부평구 아파트 옥벽, 미추홀구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노후건축물·급경사지·건설공사현장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인천시, 시설관리주체, 헬프미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은 30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이나 지속적인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균열 부위 등에는 올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디지털기반 IoT 센서가 설치되어 시스템 구축 완료시 건축물의 이상 유무를 자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 행정부시장은 이날 점검에서 옥벽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부평구의 지속적인 점검예방활동을 미추홀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안전 수칙을 준수해 단 한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지난 31일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추진과 관련해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부평구 아파트 옥벽, 미추홀구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안중삼 기자

# '으랏차차 알찬 영양 밥차' 행사 펼쳐

## 인천시, 직접 만든 식품꾸러미 취약계층 1천200가구에 배달

인천시는 1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반찬·김치와 쌀·식품꾸러미를 취약계층 1200가구에 직접 배달해 전달하는 '으랏차차 알찬 영양 밥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곧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인천시 및 군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지역 소외 및 취약계층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찬(3종: 오징어 젓갈·멸치볶음·진미

채볶음) 및 김치(1종: 순무김치는 부평구 열우물경기장에서 인천시 및 군·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직접 조리하고 개별 포장했으며 반찬·김치 이외에 쌀(4kg)과 식품꾸러미도 함께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 공항 종사자로 구성된 50여 명의 자원봉사단이 함께 밀반찬을 조리하고 별도의 식품꾸러미(사골곰탕 등 8종)를 마련해 전달하는 등 지역 취약계층의 풍요로운 추석을 위한 나눔의 장에 동참했다.

이날 열우물경기장에는 이형숙 인천시 문화복지정책부시장, 전년성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부

시장 등이 참석해 군구 자원봉사자와 인천공항 종사자 봉사단 등 200여 명이 함께 반찬, 김치 조리 및 식품꾸러미 포장 작업에 함께했다.

전년성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참여와 활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정기탁금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움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

겼지만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이러한 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행복이 전해졌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지역사회에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숙 인천시 문화복지정책부시장은 "지난 2년간 겪어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속에서도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인천시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일 시청 점선실에서 자치경찰 경위 승진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승진 경찰공무원 임명장 첫 수여

### 유정복 시장, 경위 승진 2명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1일 시청 본관 점선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승진대상자는 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김수중 경위와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수사팀 이은경 경위이다.

이번 임용식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인천시장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부착한 첫 행사이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위원회-시-인천경찰청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승진한 경찰관들에게 축하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더욱 더 안전한 인천이 되는데 인천자치경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중삼 기자

## '인천e지' 더 똑똑하고 재밌어졌다

### 20만여 개 인천 관광 정보 공공데이터 포털 통해 개방

스마트 여행 어플리케이션 '인천e지'가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돌아왔다.

인천시는 인천e지의 기능 중 여행일정을 만드는 '패스'에 GPS 기반 모바일 스탬프 기능을 추가하고 '오디오가이드'를 소비자 참여형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인천e지'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 10월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돼 9개의 민간 컨소시엄사와 함께 구축한 스마트 여행 어플리케이션이다.

기존 여행 앱과 달리 인공지능(AD)이 간단한 설문을 통해 이용자의 여행 성향을 분

석하고 맞춤 일정과 추천 동선을 제안해 이용자의 여행을 돕는다.

최근 GPS를 기반으로 한 길찾기 기능을 추가해 더 쉽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다.

신규 추가된 모바일 스탬프 기능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앱 내에 자동으로 스탬프를 획득하는 것으로 별도의 노력 없이 여행기록 저장 가능하다.

인천시는 앱의 새로워진 기능을 하반기 '인천 문화재 개항장여행 축제(9.24~25)' 도보탐방 투어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앱 이용자가 선택·방문한 목적지에 대한 여행 정보를 제공해 오던 오디오 가이드는 퀴즈를 풀고 미션을 수행하는 소비자 참여형 서비스로 개편됐다.

안중삼 기자

## 간판개선사업 시민 만족도 높아

### 인천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 기대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간판개선사업)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간판개선사업은 낡은 판류형 간판을 지역 및 업소의 특성에 맞게 입체형 및 벽면형 간판으로 교체하고 창문이용광고등 옥외광고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군·구별 사업구역 1개소를 선정해 공모하면 시가 주민 참여도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따급 효과 등을 선정한다. 본 사업은 군·구와 주민협의체 협력의 결과물로 시민은 물론

업소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까지 62개 지역·6741개 업소의 1만3395간판을 교체했으며 올해는 △중구 신포시장 주변 △동구 싹골로 일원 △중구 대동월드와 대우삼환아파트 상가 △서구 새오개 일원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예산은 약 5억원으로 시비 50%, 군·구비 40%, 자부담 10% 매칭으로 진행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인천시 간판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의 얼굴인 간판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 안테나

### 인천시, 9월 해양유물로 '염전 무자위' 소개

인천시가 9월의 해양유물로 선정된 '염전 무자위(수차)'를 소개했다. 무자위는 천일제염을 하던 염전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데 사용했던 물건으로 지역에 따라 '무자새' '자새' '물자새' '수리차' '수차' 등으로 불린다.

무자위는 수차(水車)의 우리말로 물을 자아올린다는 의미로 담고 있다.

가운데 축에 나선형으로 발판을 붙인 무자위의 형태는 물레방아 바퀴를 닮았으며 한쪽에 수구(水口)를 달아 퍼 올린 물이 흘러나가기도록 만들어졌다.

물레방아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의 무게로 위에서 아래로 돌며 방아를 찧는다면, 무자위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돌며 물에 잠긴 날개가 물을 퍼 담아 올린다.

무자위의 아랫부분을 물에 잠기게 설치하고 사람이 올라서서 날개를 밟으면 바퀴가 돌며 물을 밀어 올리게 된다. 하지만 사용하는 데 힘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져 양수기로 대체되면서 지금은 보기 어려워졌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 해양박물관에 전시될 해양유물 확보를 위해 인천시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물기증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안중삼 기자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존 보조인력 보강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다가오는 3일부터 주말 체험존 보조인력 10명을 보강해 운영한다.



시민이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건립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많은 시민이 체험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다.

주말 운영으로 체험객 안전관리 강화와 직원 피로도 감소를 위해 지난 28회 회의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대영 의원이 인천소방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원 활용안을 제안해 적극 검토 후 운영하게 되었다.

선발된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원 10명은 4조 2교대로 편성되어 3일부터 약 2개월간 주말에 체험존 교수인력을 보조하고 체험객 안전관리업무를 맡는 등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양한 소방활동을 하게 된다.

안중삼 기자

### 인천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힐링콘서트 개최

인천시가 자살예방의 날(9월10일)을 맞아 '2022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제의 힘든 시기를 견뎌낸 인천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힐링콘서트는 6일, 오후 3시20분 '내일도 맑음'을 주제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에서 개최된다.

웹툰 '내일의 라마' 작가와 조성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가수 전은진이 패널로 참여해 '내일(來日), 나의 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으로 시민을 위로한다.

콘서트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이벤트는 한 달간 진행된다.

워크숍을 활용한 '생명사랑 찾아 건기 챌린지' 인천시 곳곳에 설치된 자살예방 시설물에 찾아가 사진 찍는 '생명사랑 찾아 사진인증' 이벤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슬로건을 활용한 사진인증 이벤트 등 많은 시민들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안중삼 기자

### 인천시, 우리 쌀 수제맥주 만들기 교육



인천시는 6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쌀 이용 수제맥주 만들기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쌀 이용 수제맥주과정'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인천 쌀을 이용한 나만의 특별한 수제맥주 만들기과 페일엘 · IPA · 바이젠 · 스타우트 등의 맥주 제조공정을 배울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특히 이번 교육에 사용된 홉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농협인천지역본부에서 지원했다. 맥주 제조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홉'은 맥주의 쓴맛과 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한편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9월 인천농협지역본부와 지역농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농업신기술 보급과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등 다각도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안중삼 기자